

幼·小兒와 補藥

李 鍾 馨

一般的으로 體力이 損耗되었거나 生體의 어떤 要素가 결핍되었을때 흔히 補藥을 쓴다. 그러나 이 補藥이라는 概念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즉 어떤 一定의 物量이나 氣力이 不足했을때 이를 補充하는 意味의 補藥이 있고 또는 生體自體의 生長老化的 生理過程에서 이를 促進시키는 意味의 補藥과 이를 抑制시키는 意味의 補藥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幼小兒에게 必要한 補藥은 成長을 促進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老年期에 必要한 補藥은 老化를 抑制하는 補藥이 該當될 것이다.

東洋醫學에서의 生命體를 觀察하는 概念 또한 특이하다. 여기에도 陰과 陽의 理論이 適用되는 것이어서 人生이 誕生해서 生長老化하는 生의 軌道를 역시 陰陽의 盈虛盛衰過程으로 보는 것이다. 幼小兒期은 最高의 발달한 陽盛期에 該當되며 즉 이러한 陽盛의 힘으로 하루가 다르게 成長增大하여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陰陽의 理論상 陽이 旺盛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陰의 뒷받침이 必要하며 반대로 陰이 旺盛한 경우라면 역시 陽을 補強하는 것이 當然하다 그러므로 陽盛期에 對한 幼小兒期에는 무엇보다도 陰性的 資質을 供給하여 旺盛한 陽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成長發育을 促進하는 要諦가 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幼小兒에게 必要한 一般的인 補藥으로서의 첫째, 陽盛期에 對應하는 補陰藥을 適用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간혹 陽이 旺盛하여야 할 시기에 陽의 虛衰로 補陽藥을 必要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筆者의 臨床經驗에 비추어 보면 대개의 幼小

兒들은 生理的으로 강한 陽盛期에 처해 있으므로 前者 즉 補陰性 補藥이 適應되는 수가 많았다.

예를 들면 幼小兒로서 成長은 잘 하지만 대나무같이 瘦瘠하다든지 7~8才程度의 小兒에서 까닭없이 다리가 아프다고 보채는 등의 證候들은 確實히 陽盛現象에 對比하는 陰質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증후들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補陰藥이 絶대로 必要해진다.

또 하나 幼小兒들에게 一般的으로 補陰藥이 必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幼小兒들의 體質改善을 爲해서 補陰藥을 應用하여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確實하게 統計되거나 正確한 根據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와서 幼小兒의 體質중 過敏性體質者의 誕生이 점점 늘고있는 現實에 注目하게 된다. 그 原因은 아마도 父母들의 生活環境의 變化 즉, 文明發達에 따른 空氣, 水質, 飲食物, 藥物 및 精神的인 刺戟等에 의해서 그 影響이 태어나는 幼兒에게도 體質的으로 미쳐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어떤 幼小兒의 등이나 팔, 다리에 손끝으로 줄을 그었을때 대개의 幼小兒에게서 쉽게 붉은 刺戟線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즉, 그 體質이 刺戟反應에 過敏한 體質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幼小兒들의 체질이 날로 過敏化되고 있다는 사실은 近來 幼小兒에서 各種 過敏性疾患의 發病率이 높아지고 있는 事實로서도 알 수 있다.

刺戟에 敏感하다는 것은 즉, 陽性的인 現象으로 銳氣의 過敏狀態라고 볼 수 있는데 勿論

이것도 陰과 陽의 부조화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陽盛期인 幼小兒이므로 여기서도 역시 陰의 調整을 必要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補陰藥을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補陰藥方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四物湯 또는 六味地黃湯을 들 수 있는데 勿論 四物湯은 補血用이고 六味地黃湯은 補精用으로 區別되지만 이것을 또 女兒用(四物湯), 男兒用(六味地黃湯)으로 分別하기도 한다. 따라서 一般的인 補兒用이라면 여기에 鹿茸을 加하여 쓰는것이 恒例로 되어 있다.

筆者의 臨床例로서는 六味地黃湯은 方中에 牡丹皮 澤瀉等 小兒用으로는 多小 不必要한 藥이 있으므로 대개는 景岳方의 左歸飲(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枸杞子 炙甘草)에 鹿茸을 加하여 男兒用 補藥으로 쓰는 수가 많고 女兒에는 대개 四物湯 또는 景岳方의 小營煎(當歸 熟地黃 白芍藥炒 山藥 枸杞子 川芎去油)에 鹿茸을 加用하는 것이다. 때로는 四六湯(四物合六味方)에 鹿茸을 加하여 男女共用으로 쓰기도 한다.

勿論 補藥이라 할지라도 正確한 診察에 따른 體質 및 證候에 알맞는 補藥의 投與가 必須的이지만 一般的으로 保兒用 補藥으로 흔히 쓰이는 歸茸湯이나 參歸茸湯보다는 幼小兒의 陰陽生理的 面도 考慮하여 이와같이 補陰性 補藥을 쓰는것이 더 效果의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또 단순한 歸茸湯을 썼을때 흔히 泄瀉를 일으키어 藥效를 無用케 하는 예도 많이 보는데 上記한 虛方의 投與에서는 泄瀉等의 부작용은 별로 보지 못하였다.

대개 이러한 幼小兒의 保健用 補藥은 長期用

보다는 年令에 따른 適量(대개는 年令과 同數의 貼數)을 隨時로 投與하는 것이 實効의이며 理想的이다. 왜냐하면 補藥의 長期過用으로 인한 肥滿兒의 出現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過敏性體質의 改善藥으로서는 역시 長期投與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는 대개 蜜丸劑로 하여 長期服用을 시키는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筆者는 주로 四六湯과 肥兒湯을 合方하여 蜜丸劑한 水土丹을 쓰는 경우가 많다. 或 健實兒의 경우에는 沆瀣丹(滑石, 大黃酒蒸, 連翹 檳榔, 黑丑頭末, 赤芍藥, 枳殼, 川芎, 黃芩, 黃栢, 薄荷 辨證方藥正傳 276方)같은 抑陽瀉火之劑를 쓰는 수도 있는데 이는 要컨데 陽盛에 比等하도록 陰을 補充하느냐 아니면 陽盛자체를 抑制하여 陰에 맞추느냐 하는 方法의 차이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요즘의 幼小兒들은 營養上으로는 過去에 비하여 매우 充滿하지만 때로 營養成分의 偏成 또는 不均衡에서 초래되는 本質의 過敏 또는 特異現象들이 날로 增加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우기 幼兒時부터 각종 인스턴트食品과 各種 化學藥品等의 濫用은 成長해서까지도 豫測할 수 없는 異變을 醸出し킬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幼小兒時에 投與하는 天然의인 한방약 특히 生體의 自然順應을 考慮한 補藥의 意味는 단순한 滋養面의 效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天然의인 人性을 培養하는 面에서 더 意味가 있고 또한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 幼小兒들에게 文明이 불리 일으키는 나쁜면으로 부터의 免疫機能을 強化시키는 뜻에서도 幼小兒에게 補藥의 投與는 매우 必要한 것이라고 하겠다.